

오타루시 종합박물관 소장 영상 자료

다이쇼부터 쇼와 초기(1912년~1945년) 오타루의 번영은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일목요연합니다. 200편 이상의 영상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오타루의 상점가를 산책하고, 눈을 치우고, 청어망을 당기고, 증기 기관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에서 엄선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대부분은 파테사(*Pathé*)에서 만든 비디오카메라 ‘파테 베이비(*Pathé Baby*)’로 촬영되었습니다. 파테 베이비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아마추어용 필름 시스템으로 영화 기기를 취급하는 프랑스 파테사에서 1922년에 개발했습니다. 9.5mm 필름을 사용하는 콤팩트한 수동 비디오카메라는 일반적인 하드 커버 책보다 더 작았으며, 무게는 500g 정도였습니다.

오타루의 카메라 가게에서는 필름, 카메라, 삼각대, 홈 무비 상영용 프로젝터 등을 판매했지만, 대부분의 9.5mm 필름은 현상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보내야 했습니다. 영상 제작이 돈이 많이 드는 취미로 여겨졌던 시절에 약 200편의 필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말해줍니다.